

서울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2023년 매각

애물단지인 서울 소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가 오는 2023년 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매출 부진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유통센터에 대해 전남도가 운영권자에게 다른 업종을 허용하고 오는 2023년 전체 건물을 매각 후 새로운 입자에 센터를 개설한다는 복안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이하 센터) 운영권자에게 다른 업종을 허용하고 오는 2023년 전체 건물을 매각 후 새로운 입자에 센터를 개설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2년 개장한 센터의 매출이 지지부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민자유치

전남도, 매출 부진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부동산가치 상승...매각대금으로 새 부지 물색

(BTO)로 유통센터를 건립해 민간업자가 2030년까지 운영수익을 올리고 되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1층 마켓, 지상 1층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장·홍보관, 2층 전남 공예품판매장, 3층~5층 사무실 등을 임집계 했다.

건축면적 1682㎡, 연면적 1만2627㎡, 총 사업비 217억원(전남도 부지매입비 103억원·민간업자 건축비 114억원)가 들어갔지만, 1층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장 매출액은 2012년 4억2000만원, 2013년 1500만원, 2014

년 1900만원, 2015년 1억6000만원, 2016년 8700만원, 2017년 1400만원 등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센터 이름에 걸맞게 지상 1층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장·홍보관, 2층 전남 공예품판매장등을 의무로 두도록 했으나 매출부진이 이어지자, 운영권자에게 1, 2층에 대해 다른 업종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 건물의 '노른자' 1층은 인기 업종의 입내나 운영권자 직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무늬만

농수축산물유통센터가 되는 셈이다. 전남도와 건물운영권자는 이런 교육지책을 통해 건물의 활성화를 꾀한 뒤 오는 2023년 건물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다.

현재 센터의 부동산 가치가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2023년쯤 되면 가치가 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대신 센터를 매각한 뒤 다른 곳을 물색해 유통센터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센터 운영실적으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1층 농수산물 매장에 다른 업종을 허용한 뒤 부동산 가치가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23년 매각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동명동 힐링·문화관광지로 떠오른다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대 '동리단길'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동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새로운 힐링·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동명동 카페거리가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광주관광에서 꼭 가보고 싶은 이색적인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광주시와 동구는 문화전당과 동명동 일대를 대상으로 구도심의 역사·근대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관광 코스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7개 테마로 동명동과 문화전당권을 잇는 '도심관광 트레일'을 운영 중이다.

서구,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대폭 확대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구 지역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이달말까지 이미주어 독서동아리 40팀을 모집한다. 독서동아리는 5인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고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자유롭게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구는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도서구입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남구 "종합청사에 화이야" 가상 대피훈련

광주 남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 대피훈련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남구청 종합청사 일원에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이날 훈련은 대형 화재 발생시 공무원들이 상황별 대처 능력을 몸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를 비롯해 대구 사우나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 발생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화재 대피훈련에는 직장 민방위 대원 50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본격 추진

광주 북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가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올해 2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는 3월 20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광산구,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광주 광산구가 미세먼지를 잡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공기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까지 이끌어내는 행보를 착착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19일 광산구가 구청에서 KT 전남본부(본부장 오기섭)와 '미세먼지 통합환경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KT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시설을 공기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

협약에 앞서 지난달 15일 광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의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공기정화 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을 신청했다.

임형택 기자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동공로자회'로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 명칭 변경...공법단체 설립 추진

"가짜 유공자 운운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나선다.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따라 구속부상자회에는 5·18 부상자(장해등급을 받은 자)와 기타 희생자, 방계 유족이 혼재돼 있다.

2004년 국가보훈처는 보상법을 근거로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를 인가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5·18 예우법상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방계 유족을 제외해야 한다"며 "이에 공로자회 회원의 자격을 부상 등급 없는 기타 희생자(예우법 4조3항)로 정관을 개정했다.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 200여 명이 기존 부상자회로 입회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5·18 부상자회가 부상자(현 구속부상자회 회원) 편입과 새 집행부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장병안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5·18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 단체가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봉우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교통특별대책단 구성한다

내달부터 본격 가동 계획

광주시는 18일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착공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중 교통처리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시민안전실,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또 시의회,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대책단은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백운광장 주변 2호선 공사, 백운고가 철거, 하수관로 개선 등 각종 공사의 사업 시기 조정 ▲공사 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종합교통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특별대책단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이 포함된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시민공문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키로 최종 결정된 데 이어 현재 중앙부처 사업승인 단계에 있다"며 "오는 6월 1단계 구간 착공으로 교통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층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신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